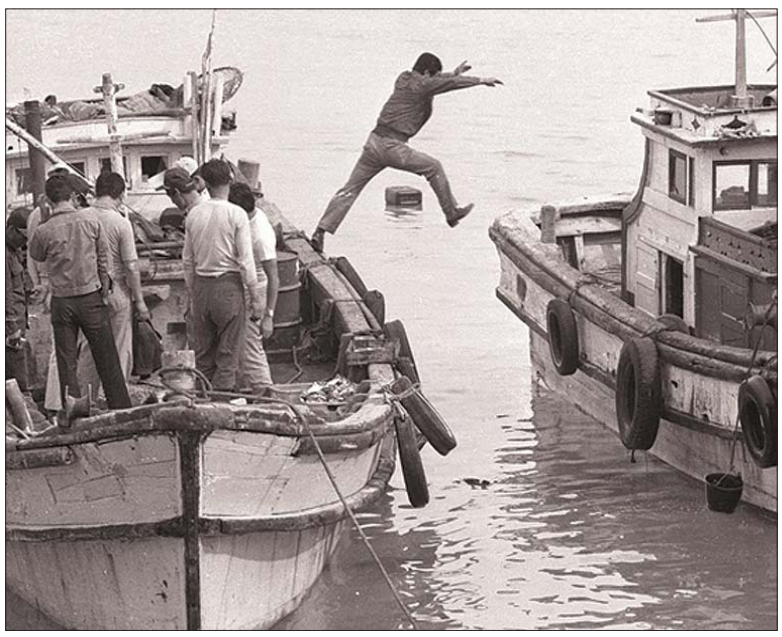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전북도립미술관, 내일부터 군산 배경 특별 전시회 개최



신철균 작품 - 군산 해망동 선창.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에서는 '바람 부는 날은 장미동에 간다' 展, '전북청년 2019' 展, '기증작품 특별전-신철균' 展을 개최한다.

'바람 부는 날은 장미동에 간다' 展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군산의 '장미동(藏米洞)'을 주제로 근대의 역사적 상흔과 현재의 군산 풍경을 현대미술로 제시한 전시로 2관~4관에서 진행한다.

올곧은 역사의식과 사회성을 동반한 7명이 펼친 회화, 설치, 영상작품 70점이다. 미술가는 고보연(설치), 구샛별(회화), 김영경(사진), 김종희(설치), 서홍석(회화), 신석호(설치), 조은지(영상) 7명.

올해는 군산 개항 120주년을 맞는 해이다. 전라북도 군산은 일제식민지 조계지로 쌀 수탈의 대표적 장소였다. 지금도 일제강점기 상처와 그늘이 오롯이 녹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있다. 이번 기획전은 군산을 주제로 미술적 상상력으로 역사의 상처를 되짚고, 기억해서 담아내고자 했다. '바람'은 제국주의 욕망을, '장미동'은 군산항을 통해 쌀을 수탈한 기표로서의 공간특성을 의미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00년대 사진으로 당시 시대를 담았고, 현재 군산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미술인들과 군산 레지던시에 체류하면서 이방인으로서 현재의 군산을 바라본 작품을 통해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두 개의 관점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제2전시실, 김영경은 군산 신도시의 개발과 거주환경 변화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원도심의 풍경을 포착한 사진 작품이다. 조은지는 백릉 채만식의 '탁류'를 읽고, 기생인 행화에 관심을 가졌다. 군산을 배경으로 촬영했고 행화의 얘기를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불렀다.

제3전시실, 고보연은 버려진 의류와 천들을 접합하고 바느질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존재감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삶을 표현했다. 김종희는 군산의 역사와 경제적 욕망, 문화적 욕구가 복잡하게 뒤엉켜 변화되고 있는 군산의 아이러니한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의문들을 삶의 불안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제4전시실, 신석호의 '버팀목'은 일상을 사는 미술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신없이 내달리는 현실과 그것에 편승하는 관행적 방식에 대한 예술적 발언이다. 서홍석은 한지 위에 목탄 드로잉으로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후벼서 짓이겨 놓았다. 더불어 '초혼가'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았던 굴곡진 이 땅의 역사를 표현했다. 구샛별은 신흥동 절골길을 그렸다.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이 떠나간 뒤, 흉물스럽고 쓸쓸한 모습으로 드러난 흔적들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의 한파가 남긴 아프고 슬픈 기억을 되새기며, 현재의 시간과도 맞물려 있는 군산의 풍경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도립미술관 5전시실에서는 '전북청년 2019' 展을 개최한다. 초대 미술가는 (김)범준(회화, 영상), 김영봉(회화, 설치), 박두리(회화, 설치)이다.

'전북청년 2019' 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술가들의 기획전이다. 올해는 22명 지원자 중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심사로 3명을 선발했다. 한국사회가 지니는 모순을 다양한 미디어 활용과 조형적 어법으로 질문하는 예술적 문법이 탁월한 (김)범준, 소소한 재료와 형태로 제시하는 담백한 설치작업으로 삶의 공간과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김영봉, 전통과 현대적 매체 혼용이 훌륭하며 시각화한 매체로 던지는 질문이 복잡한 감정을 자극하는 박두리이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의 현대미술과 전북현대미술이 교류 연대하는 '북경 發 전라특급', 중국 베이징 숭좡(宋庄)의 문헌정보미술관 초대 '전라특급' 展에도 초대 출품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선발한 미술가들을 집중 조명하고 그들의 창작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평론가 1:1 매칭, 제작비 지원, 창작스튜디오 입주, 레지던시 파견, 아시아 등 국제적인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박두리 씨는 2019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30일간 대만 관두미술관 레지던시에 파견할 예정이다.

더불어, 1층 상설전시실에서는 전북의 원로 사진작가인 신철균(1929~)의 기증작품 특별전이 열린다. 신철균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해방 후 서울로 내려왔다. 스무 살을 갓 넘겼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이듬해 소위로 임관해 6년간 군에 몸을 담았다. 1963년부터 전북 군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며 폐허의 잔재 위에 희망의 싹이 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진난만한 어린이들과 희망을 간직한 서민의 삶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신철균은 리얼리즘 사진작가로 활약하며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1968년 대구 매일신문사 주최 어린이 사진 공모전 금상, 1978년 일본 도쿄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사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는 1960~70년대의 고단함을 슬픔과 빈곤함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로 승화하고 있다. 순수한 어린이들의 때 묻지 않은 모습과 자기 삶의 터전인 군산의 구석구석을 50년 넘게 촬영하면서 가식 없는 진실한 눈으로 평범한 삶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100년 전 감동을 모두 함께"

군산시립예술단,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성황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음악회가 지난 14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큰 호응 속에 열렸다.

군산시립예술단 백정현 상임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 명작스페셜 5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에는 예매가 전석 매진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공연은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와 정신을 다같이 기억하자는 의미로 사물놀이 흙소리를 비롯해 군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합동으로 무대를 열었다.

군산만을 위한 헌정곡이라 할 수 있는 '3·1만세운동 기념 합창서곡'은 민요 아리랑과 애국가를 국내외 최고의 작·편곡자인 김애라가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게 서양 관현악기를 배합해 편곡한 곡이다.

합창의 특성과 오케스트라와의 웅장한 배경, 관객 사이에서 깜짝쇼로 연주를 한 사물놀이 흙소리와 관객의 제창이 훌륭하게 융화되었고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군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영상이 진행됐다.

이에 동화된 관객들은 박자를 따라 태극기를 휘저었으며, 지휘자의 지휘 아래 힘차게 아리랑과 임시정부 애국가를 제창하는 감동의 순간이 연출됐다.

이어진 협연 무대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에서 첼리스트 김준환은 빼어난 섬세함을 더한 열정적인 모습으로 연주해 전반부의 극적인 분위기를 담백한 반전과 고조로 이끌었다.

대미를 장식한 무대는 차이코프스키의 6개 교향곡 가운데 가장 변화가 많고 열정적인 '교향곡 5번 작품 64'로 관객을 압도했다.

백정현 지휘자는 "이번 음악회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무대를 마련했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100년 전 감동을 다함께 느끼는 화합의 음악회로 승화해 선보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시립예술단 신임 상임지휘자 김경희 · 심상욱 취임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시립예술단을 이끌어갈 상임지휘자로 시립교향악단에 김경희 숙명여대 교수와 시립국악단에 심상욱 영광군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를 각각 임명했다.

교향악단 김경희 지휘자는 숙명여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국립음대 지휘과를 졸업한 뒤 여성지휘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등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러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루마니아국립오케스트라 등 해외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지휘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현재 (사)한국지휘자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악단 심상욱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유타대학 음악대학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국악학과 지휘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 지휘자로서, 서울대, 우석대 등에 출강 및 영광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난계국악단, 국립부산국악원 등과 다수의 객원지휘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경희 지휘자는 1세대 여성지휘자로, 세련되고 깊이 있는 음악해석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오케스트라와 관중을 압도하는 저력을 가진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심상욱 지휘자는 젊은 지휘자로서 국악과 서양음악을 모두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시립국악단의 음악적 세련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립예술단 김양원(부시장) 단장은 "전주시립예술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으로서 적극적인 문화소비계층을 위한 고품격 공연 뿐 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에 따라 연령별·계층별 등 차별화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